

인생의 아픔과 기도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 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도록 격려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1~20

묵상할 말씀 :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10-11절).

찬송 : 543장(통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반응 하나요?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책 이름은 사무엘이다. 그러나 내용은 열왕기하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사의 시작이다.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될 책인데, 그 시작은 한 여인의 설움과 아픔에 응답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 중의 왕이며 인간 왕 위에 계셔서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으로 시작한 것과 똑같다. 왕국사는 우리를 대표하는 아픔 많은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시작한다. 그래서 왕국사의 첫 책인 사무엘상은 인간 삶의 현실 이야기가 된다. 인생은 아프다.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성경의 거대한 왕조실록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픔 속에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한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도움말 :

- 에브라임 사람(1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에브라임에 살았다(대상 6:27-28).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다.
- 두 아내(2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나, 일부다처제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율법이 무시된 관행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삿 21:25).
- 실로(9절): 당시 회막과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성지였다.
- 심정(15절, 히: 네페쉬): ‘네페쉬’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심정을 통한’이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내다’라는 의미이다.
- 생각하신지라(19절, 히: 와이즈케레하): 직역하면 ‘기억하신지라’이다.
- 사무엘(20절):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 구하였다,’ 혹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고, 나머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면서 경청합니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아내 한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1-8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참고로, 한 남편의 두 아내는 구조적으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임신이 되지 않아 설움을 겪었다. 고대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결손(缺損)이었다. 고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가 자식을 출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낳은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보장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석 질문] 성경은 한나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두 번에 걸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5-6절 참조)

성경은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두 번에 걸쳐 설명해 놓았다. 한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녀의 태를 막으신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사람에게 있는 결손이나 결함이 꼭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요 9:3). 한나의 불임도 결과적으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울 질문] 한나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생각, 감정, 반응 등)을 간략하게 나누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자기를 주변 세상과 격리시킨 채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변과의 관계에 쓸데없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우울증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세 번이나 작정기도를 했으나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뻐할 수도 있다(고후 12:8-10).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배후에 한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고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관찰 질문]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9-11, 15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식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키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10-11절).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했다(15절).

[해석 질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나가 드린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왜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히(자신을 세 번에 걸쳐 ‘여종’ [11절]이라 표현함)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정리하면, 한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거울 질문] 당신은 어려움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어 보자. 그런 후에 아래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구하기도 한다(행 4:23-31 참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한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3. [관찰 질문]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19-20절)

한나가 남편과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시어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해석 질문]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불임과 임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유익할 수 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 119:71). 한나의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거울 질문]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혹은 wait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어떤 때는 모세나 바울의 경우와 같이 소원을 들어 주시지 않으므로써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신다. 때로는 오랜 고난을 거쳤던 요셉이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25년 뒤 약속을 받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신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기도로 배운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눈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걸려 넘어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잘 풀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풀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좌절이 희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함께 나눈 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나 오래 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불평과 비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눈 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자.